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곳곳에서 펼쳐지는 제자들의 활발한 연대의식에 대한 감사함으로 인하여
떠오르는 아침 해와 함께 드러지는
피해 당하고 상처입은 이들을 위한 저희의 기도의 순간조차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피해를 당한 모든분들 그리고 정성어린 구호품/성금을 보내주시는 모든분들을
당신의 자비의 물결로 흠뻑 적시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영원무궁한 우리의 의지처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 9,1

친애하는 크리스천 제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엔 텍사스 걸프 연안에 들이닥친 하비 태풍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형제/자매님들의 모습들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들이 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수된 건물에 방치된 노인분들, 평상이라면 대피처요 예배장소였을 그러나
이젠 물에 잠겨버린 교회들, 그리고 물속에 잠겨버린 집들을 바라보며 피해당한
지역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구조 대원들, 이웃들 그리고 생면부지의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이들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만 하는지를 이해 할수
없기에, 낙망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어쩔줄 몰라하며, 또 분노를 느끼기조차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기도와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힘을 모아 이 재난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곤란에 처한 우리의 형제/자매님들을 돕기 위하여 한 교회식구로서 힘을 합하는 바로 그 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비 태풍이 초래한 전체적인 피해규모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리고 자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몇주가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에 따르면,

-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텍사스이지만, 텍사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테네시, 캔터키지역의 천삼백만명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 구조대원들은 침수된 집에 있던 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 연방긴급재해대책본부(FEMA)는 실종된 사람의 정확한 숫자나 지금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의 숫자를 아직 정확 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나, 지난 금요일까지 확인된 사상자 수는 사십 칠명에 이르고
- 삼만 이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삼십이만 오천명의 텍사스 주민들은 연방긴급재해대책본부(FEMA)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 텍사스주의 비만트시의 심이만명에게는 식수가 끊긴 상태입니다.

제자회 교회들의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 세계의 교회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대략 열두개 교회들의 건물이 침수를 당했거나 지붕들이 망가졌고
- 저희 제자회 교회 회중들과 관계가 있는 백 여개이상의 가정들이 침수나 다른 종류의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긴급 구조요원들이 이미 권고했듯이, **지금은 텍사스로 몰려갈 때가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지역들은 외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협업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일 이외로 처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숙박장소들 역시도 몰려든 대피자들과 긴급구조요원들로 넘쳐남니다.

외부로부터 온 이들 자원 봉사자들이 이지역을 집중 취재중인 언론들이 모두 철수하고, 정비/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즈음까지, 여러 달 이나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돕겠다는 결단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는 제자회 구제국의 비 뉴엔과 케롤라인 헤밀턴-아놀드, 히스패닉계 제자회 총회 임시 총회장이신 로리 타피아 그리고 테리 호드 오웬스 총회장 목사님들이 이들 피해 지역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하면서 이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잘 파악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상황을 접하게 된 많은 분들이 피해 지역을 도울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전화나 이메일로 구제국에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케나다와 미국의 수 많은 제자들은 도움을 배풀기를 원하는 천성을 타고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저 앉아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견딜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 피해 지역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기를 희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중보의 기도 그리고 구제국에 보내주시는 구호성금으로 이미 우리 제자회 회중들의 구호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텍사스의 구호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 제자들이 펼치는 구호 활동들은 대피소 제공, 구호 식품 배분, 청결작업, 정신/영적 돌봄, 그리고 집으로 되돌아간 이들의 정리/정돈 작업 돕기등을 망라합니다.

저희 크리스천교회 제자회의 복구 후원 노력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상에서 강도당한 사람을 구해주었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도움을 배풀기 까지 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 10:33-35) 구제국에서는 이들 피해 지역들의 수년간이 소요될 복구/재건을 돕기 위하여 각 교회들과 지역 담당자들, 지방회 소속 사역자들, 제자회 자원 봉사단, 재난 구호를 위한 자원 봉사 단체(VOAD), 제자회의 교회 확장국, 자선국, 연금국 등과 앞으로 몇주 동안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회원들이고 또 제자회의 사역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입니다 - 즉 카트리나와 리타 허리케인, 조플린의 토네이도, 비슷한 홍수 피해사례들, 그리고 현재의 하비 태풍등 그 동안 있었던 다른 재난들에 대처했던 방식처럼 이번에도, **다같이** 한 교회 식구들로서.

부디 피해당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국에 보내주시는 구호성금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금들은 100% 수 개월내지 수년동안 지속될 피해지역의 복구/재건 작업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모두는, **다같이**, 예수님의 이름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리 호드 오웬스,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총회장

비 뉴엔, 제자회 구재국 실행 목사